

司牧研究

제45집 (2020/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발 간 사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사목현장, 1항)라는 공의회 교부들의 공통된 인식은 교회가 이웃 사랑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간을 마련해줍니다. 이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6~37).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는 1인가구를 특집으로 엮었습니다. 1인가구의 형성과 증가현상을 살피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과 교회의 사목적 접근법을 알아보는 “1인가구 시대”를 특집으로 구성하여 다섯 편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어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고통받는 인간의 치유를 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기고 논문과 주교서품기도에 구조고찰을 주제로 한 번역문이 있습니다.

사회학자이며 현재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인 박정우 신부는 이번 제45권의 특집인 ‘1인가구 사회’의 문을 열어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삼분의 일이 1인가구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유럽에서 보여주었던 1인가구 증가현상이 아시아에서도 보여지는 과정과 원인 등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또한 1인가구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도 밝혀줍니다. 1인가구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변미리 씨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울한 싱글인 산업예비군 집단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불안한 독신자를 위한 가족 재구성화 지원 전략, 빈

곤한 실버 세대를 위한 경제, 정서적 지원 중심의 사회 안전망 확충과 골드세대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간계획” 등 각 계층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1인가구의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현실은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각 개인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의 한정란 교수는 한국노년학회 회장으로 서울대교구에서도 노인사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논문의 서두에서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 전체적인 현상이지만 가톨릭교회의 고령화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함께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안에서 신앙과 정서적 유대감을 토대로 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둘째, 1인가구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목 자원의 투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1인가구 노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세대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일인가구 노인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강화하기 위한 ‘역량중심 노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노인사목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사료됩니다.

서울대지털대학교 교양학과 김문태 교수는 대한민국이 몇 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되리라는 예측을 하며,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의 실태와 교회의 역할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강과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신적 측면 특히 종교에 무관심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노인 신자들이 삶의 가치와 행복의 근원, 그리고 신앙의 이유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행복관이 비신자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노인 사목을 할 것인가? 죽음에 대한 염려가 큰 노인신자들에게 사말교리를 비롯한 교리교육을 강화하고, 미사를 중심으로 한 전례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며, 신심활동을 독려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심수녀회 소속으로 구약성경 전공을 한 이명기 수녀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여건과 교회의 사목적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여성의 생애주기와 삶의 조건이 전면적으로 변화되었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양성평등의 수준 상승에 긍정적 변화가 있지만 이면에는 삶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협에 놓인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목에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전망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통찰력 있는 해안을 제시합니다. 사회적 고립의 표상인 사마리아 여인은 함께 하는 이의 부재의 영역에서 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욕구로, 곧 관계지향성을 확장하는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사목적 돌봄과 연결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해주었습니다. 사목의 새로운 방향인 공동합의성 안에서 교회가 그 정체성으로서 친교 영성 및 경청과 대화, 그리고 교회일치적 여정과 사회봉사를 통해 1인가구를 교회로 새롭게 초대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연구라 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인 박기호 신부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산 위의 마을’ 공동체 지도신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와 인공지능 시대의 양극화에서 낯선 세대에 속하는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비인간적인 문화의 문제들을 통찰력 있게 지

적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동체 영성을 제시하고 본인이 실제로 대안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상품주의’와 ‘소비문화’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의 질서의 중독성을 깊은 해안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계의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들의 ‘도시형 공동생활 공동체’를 가톨릭교회의 방식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와 영성이 1인가구 시대에 문제가 되는 ‘빈곤’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단에는 교회법 전공자인 한영만 신부가 교회법 관점이 아닌 신학적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의 고통 받는 인간의 치유에 대한 연구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유래 없는 혼란과 두려움을 준 코로나19 감염병은 인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팬데믹 상황은 일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하느님과의 일치인 참된 행복을 위한 그리스도교적 덕행의 실천은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 대한 ‘돌봄’의 정신을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추덕과 향주삼덕의 영성생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주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성사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앙의 자유 회복과 성사 거행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본 대학의 전례학 교수이며 사목연구소 소장인 본인의 번역문인 ‘주교 서품 기도의 구조 고찰’입니다. 전례학자인 Giuseppe Ferraro가 전례해석학을 이용하여, 서품기도문들을 구조고찰하고 분석한 책의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Lex Credendi(믿는 법)에 속하는 교회의 가르침에서 주교직에 대한 내용을 교회의 공식 문헌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Lex Orandi(기도의 법)인 전례 기도에서 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한국에

소개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역사적, 신학적 고찰에 머물렀지, 전례해석학에 바탕을 둔 전례적 의미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Giuseppe Ferraro의 연구를 소개하는 것은 주교직에 대한 전례적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틀이 변화되고 ‘1인가구’라는 새로운 가정의 형태가 중심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고립과 대립이 아닌 만남과 일치를 위한 자유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공동적인 방향성이 사회에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1인가구 문화’ 특집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사목 방향을 잡을 때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야무진 희망도 가져봅니다.

2020년 12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윤종식 신부

司牧研究 제45집 2020 겨울

차 례

발간사/ 3

윤종식

〔특집〕 1인가구의 사회적 상황과 사목적 배려, 그리고 공동체 운동

한국 사회의 1인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 11

박정우

노인 일인가구 현황 및 노인사목의 과제/ 48

한정란

고령화시대 노인의 실태와 교회의 역할/ 77

김문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사목적 배려/ 108

이명기

위기의 시대, 공동체 운동의 사목/ 132

박기호

〔논단〕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고통 받는 인간의 치유/ 171

한영만

〔번역〕

주교 서품 기도의 구조 고찰/ 203

쥬세페 페라로, 윤종식 옮김

〔부록〕/ 227

Ⅰ.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229

Ⅱ.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235

Ⅲ.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238

Ⅳ.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240

Ⅴ.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242

司牧研究 총목차(1994-2020 여름)/ 244

Contents

Editorial Preface/ 3	<i>Rev. Yun, Jongsik, S.L.D.</i>
[Special Issue] The Pastoral Ministry in the Single-Person Household Era	
The Realities of One-Person Household and Policy Tasks in Korea/ 11	<i>Rev. Park, Jungwoo, Ph.D.</i>
Current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Living Alone and Tasks for Senior Pastoral/ 48	<i>Prof. Han, Jungran, Ph.D.</i>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the Aging Era and the Role of the Church/ 77	<i>Prof. Kim, Moontae, Ph.D.</i>
Pastoral Care for Single-Woman Households/ 108	<i>Sr. Lee, Myoungki, Ph.D.</i>
The Pastoral Ministry of the Community Movement in the Era of Crisis/ 132	<i>Rev. Park, Kiho</i>
[Articles]	
Spiritual healing of the suffered person in COVID19 Pandemics/ 171	<i>Rev. Han, Youngman, J.C.D.</i>
[Translation]	
A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Episcopal Ordination Prayer / 203	<i>Giuseppe Ferraro</i> <i>tr. by Rev. Yun, Jongsik, S.L.D.</i>
[Appendixes]/ 227	